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9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수질보전과장 전미희 ☎440-5501 • 담당자 조영민 ☎440-550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물 약속, “먹는물 전항목 조사” 실시

- 봄철, 안전한 약수터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 -

인천광역시는 봄철을 맞이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 ‘먹는물수질기준 전항목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수터는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먹는물공동시설로 인천지역에는 6개 군·구 30개소의 약수터가 운영 중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약수터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간간한 수질검사를 통해 약수터 수질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8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4회를 추가한 연 12회 검사를 통해 수질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4월과 10월에는 여시니아군을 추가 조사하고, 7월에는 수인성감염

질환의 대표 원인균인 살모넬라, 쉬겔라 등을 검사해 관내 약수터의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실시한 약수터 수질검사는 총 384건으로 29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초과 항목은 주로 미생물 항목이며,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지점은 없었으며, 초과된 시설은 시설개선 및 관리에 활용토록 미생물 제거에 효과적인 자외선 소독기 설치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등 오염 원별 맞춤형안을 군·구에 제시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http://air.incheon.go.kr>)에 매월 공개하고, 안전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음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및 건강한 약수터 이용법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반드시 약수터 안내표지판에 게시되어 있는 수질 성적서를 확인하고,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음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약수터를 방문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컵 이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 제공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 약수터 이용 안내>>

◆ 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약수터에서)

- 찾아가시는 약수터 주변 청결은 내가 먼저 실천해주세요. 약수터에서의 기본 환경 예절이 깨끗한 약수를 드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 비가 내린 뒤 주변 동물들의 배설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비가 많이 온 후 **2~3일간**은 약수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온 후 약수가 증가하면 음용을 자제해주세요. 건수(비온 뒤 일시적으로 솟아나는 물)의 유입으로 세균, 탁도 등의 일시적 부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약수터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을 꼭 확인** 하여, 수질기준부적합 판정 시에는 음용을 중지하시고 재검사하여 적합판정 후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가정에서)

- 약수를 채수하시는 용기는 꼭 집에서 세척하여 주세요. 약수터에서 약수물로 약수통을 세척하는 일은 삼가 주세요. 청결하지 못할 경우 세균에 오염된 약수를 마시게 됩니다.
- 약수를 1주일 분량(약 20리터 1통) 정도만 채수해주세요. 실온에서 오래 보관 할수록 미생물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채수하신 약수는 **가능한 1주일 이내에 마시고**, 여름철에는 수인성 식중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끓여서 식힌 후 냉장 보관하여 음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때 냉장 보관 용기는 유리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물맛을 유지하시는데 좋습니다.